

청년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와 함께하는

목포대학교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 대전 대흥동 공정여행 -



2014. 11. 21.

청년여행사회적기업 (주)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대흥동 공정여행

11.21 (금)

시간	A팀	B팀
10:30 12:00	㉠ [이론교육①] 공정여행개론: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 - 청년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의 창업의의와 동기 * 문화예술마을 대흥동 중심으로 - 국내외 공정여행 사례로 살펴보는 공정여행개론 및 모델	
12:00 13:00	㉡ [점심식사] 할머니 옛이야기가 담긴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 20년 째, 대흥동 골목을 지키며 살아가는 할머니의 구성진 이야기와 함께 하는 대전음식 <두부 두루치기>와 칼국수	
13:00 13:30	㉢ [대흥동 탐방①] 대전의 과거-현재-미래가 숨쉬는 충남도청 탐방 - 1932년 지어진 일제강점기 대표적 관청으로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로 주목받은 근대건축물 - 일제가 만든 도시 대전과 그 복잡한	㉣ [대흥동 탐방①] 문화예술레지던시 '산호여인숙' - 오래된 여인숙이 현대의 예술가들과 만나면, 누구나 주인이 되는 게스트 하우스로 변한다? 예술과 방랑객이 하나되는 집, 산호여인숙을 돌아보다
13:30 14:00	한 현장에서 피어난 대전의 근·현대화 현장을 조명한다.	㉤ [대흥동 탐방②] 대전의 과거-현재-미래가 숨쉬는 충남도청 탐방 - 1932년 지어진 일제강점기 대표적 관청으로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로 주목받은 근대건축물 - 일제가 만든 도시 대전과 그 복잡한
14:00 14:30	㉥ [대흥동 탐방②] 문화예술레지던시 '산호여인숙' - 오래된 여인숙이 현대의 예술가들과 만나면, 누구나 주인이 되는 게스트 하우스로 변한다? 예술과 방랑객이 하나되는 집, 산호여인숙을 돌아보다	한 현장에서 피어난 대전의 근·현대화 현장을 조명한다.
14:30 15:30	㉦ [대흥동 탐방③] 근대공간에 꽃 피어난 문화예술복합공동체, 대흥동 너나들이 * 대전창작센터 → 대흥동 성당 → 이공갤러리 → 대전여중	* 대흥동성당 → 대전창작센터 → 대전여중 → 이공갤러리
15:30 16:30	㉧ [졸업식] 대흥동 탐방 졸업식 / 공감만세 - 월드카페: 대흥동 탐방을 통해 얻은 영감과 배움 - 공정여행의 자아성찰 기법: 나에게 쓰는 엽서	
이동: 공감만세(16:30) → 목포대학교(19:00)		

우리가 거니는 곳



[충남도청]

충청남도청은 1896년 충청남도가 생기면서 공주에 있었던 도청을 1932년 10월 대전으로 이전한 뒤 1989년 1월,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되면서는 관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등록문화제 제18로 지정된 충남도청은 건물의 형태와 모습이 옛 조선총독부 건물과 흡사함을 띄고, 당시 역사의 흐름과 배후를 파악하는 귀중한 유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으로 건물의 보존여부도 현재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 대흥동 성당]

대흥동 성당은 1945년 대흥동으로 옮겨왔습니다. 1945년 당시만 해도 유치원이었던 이곳에서 유치원 목조 건물 강당을 성당으로 사용했습니다. 6·25 때 피난민 임시 수용소로 사용했던 건물은 6·25 이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후 임시 성당을 건축했으나 신자가 늘어 대성당을 세우기로 결정, 지금의 건물은 1962년 완공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대전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하늘을 향해 두손을 모으고 있는 형상의 건물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당은 대전충남지역 민주화운동의 성지이자 대전의 근대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산호여인숙]

문화와 예술이 問安하는 산호여인숙

대흥동 문화예술가들이 수년째 방치되던 허름한 여인숙을 개조하여 멋진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낸 산호여인숙. 빈집에 관심이 있던 공공설치예술가 송부영 주인장과 예술인들의 노력과 열정은 현재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원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고,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전에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산호여인숙은 대전의 원도심인 대흥동의 지역 문화를 알리고 교류하는 역할을 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흥동 읽을거리 하나.

근대사 발자취 느끼고 아기자기한 갤러리 문화 만끽하고



▲ 대흥동 거리의 수공예품 가게 내부 모습

누군가가 '대흥동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한다면 대부분 "뭐 볼게 있다고"라고 먼저 대답할 것이다. 우리에게 대흥동은 원도심일 뿐 여행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행을 살고 있는 공간으로부터의 떠남이라고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정말로 놀랍게도 대흥동이라는 그 좁은 공간만으로도 하루짜리 알찬 여행이 된다. (주)공감만세는 국내 공정여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근대 공간의 상상공작소 대흥동 공정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주)공감만세 조수희 팀장은 "대흥동을 여행하게 된 것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동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흥동이 좋아서 이 동네를 알리고 싶어서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흥동은 도시의 활력을 둔산 등 신도심에 빼앗긴 스러져가는 원도심이 아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화예술이 꽃피우고,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는 인심 좋은 도심 속 시골마을이다. 하루짜리 대흥동 공정여행을 떠나보자. 우선 대흥동은 근대문화유산의 산실이다. 일제강점기 때인 1932년에 세워진 충남도청과 1958년에 지어진 대전창작센터는 시간이 멈춰버린 근대 공간이다. 배가 어느 정도 출출해질 때가 되면 20년째 대흥동 골목을 지키고 살아가는 '수원칼국수'에 들러 주인할머니의 구수한 옛날이야기를 듣는다. '산호여인숙'이라고 들어봤나. 여인숙 간판이 내걸린 이 곳이 대흥동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만든 게스트하우스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북카페 '이데'에서 대흥동 청년들이 만든 대흥동만의 문화소식지 '토마토'를 읽으며 공정무역 코코아 한 잔을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 대흥동에도 제주도처럼 '올레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원도심 올레길은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양증맞은 카페와 가게 등 상상공작소를 찾는 쏠쏠한 재미가 있다. 문의 ☎ 042-335-3600 한경수 기자 <출처 : 대전일보 2012-11-30>

대흥동 읽을거리 둘.

아! 뽕죽집을 어찌 하오리까?



▲ 뽕대만 남긴채 철거된 대흥동 뽕죽집

최근 대전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대흥동 '뽕죽집'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로 언론과 각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대흥 1구역 재개발 사업구역 내 위치한 '뽕죽집'은 대전지역 근대 건축물 중 개인 소유 주택으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1929년 철도국장 관사로 지어졌으며 당시 일본에서 직접 가져온 목재로 지어진 건물로 일본식과 서양식 건축양식의 절충 건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됐다.

가지정 문화재인 뽕죽집은 원형보존 원칙하에 문화재 영향성 평가를 받아야만 형상변경 가능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원형 그대로 보존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실측 설계도 없이 건축물 심의 허가도 나지 않은 가운데 조합이 무단 철거한 것에 대해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뽕죽집 무단 철거에 대한 기사가 25일 지역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되면서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대전문화연대와 대전문화역사진흥회는 28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두 문화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대흥동 뽕죽집을 대흥1구역 재개발 조합이 문화재 이전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철거한 행위로 문화재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감독해야 할 중구청과 대전시가 대흥동 뽕죽집의

보존과 적법한 이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일을 했냐"며 자체 단체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성명은 또 "대흥동 뽕죽집의 훼손은 시민의 공공재인 문화재를 훼손한 것으로 대전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 수준과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성명서는 "문화재와 관련한 대전시와 중구청의 행정을 믿기 어렵게 됐다"며 대전시장과 중구청장은 진상을 파악 및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즉시 대흥동 뽕죽집의 원상을 회복, 문화재를 훼손한 책임자를 즉각 고발 하라고 촉구 했다.



<출처 : 디트뉴스24 2010-10-28>

대흥동 읽을거리 셋.

월간 토마토, 대흥동 시대를 열다

매월 88페이지 남짓한 잡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예상했던 유료구독자 증가치는 초반 반짝한 이후 정체였다. 구성원 인건비를 최소화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지만 매월 잡지 제작 고정비를 감당하는 것도 만만찮았다. 그렇게 8개월 가량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북 카페를 취재했다. 소설가 김운하 씨가 오픈한 가게였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에게 건물 2층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비워둔 지 오래여서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만나야 할 인연이라도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토마토 제작비 확보도 수월치 않은 상황에서 40평 규모의 사무실을 얻는다는 게 언감생심이었다. 그래도 욕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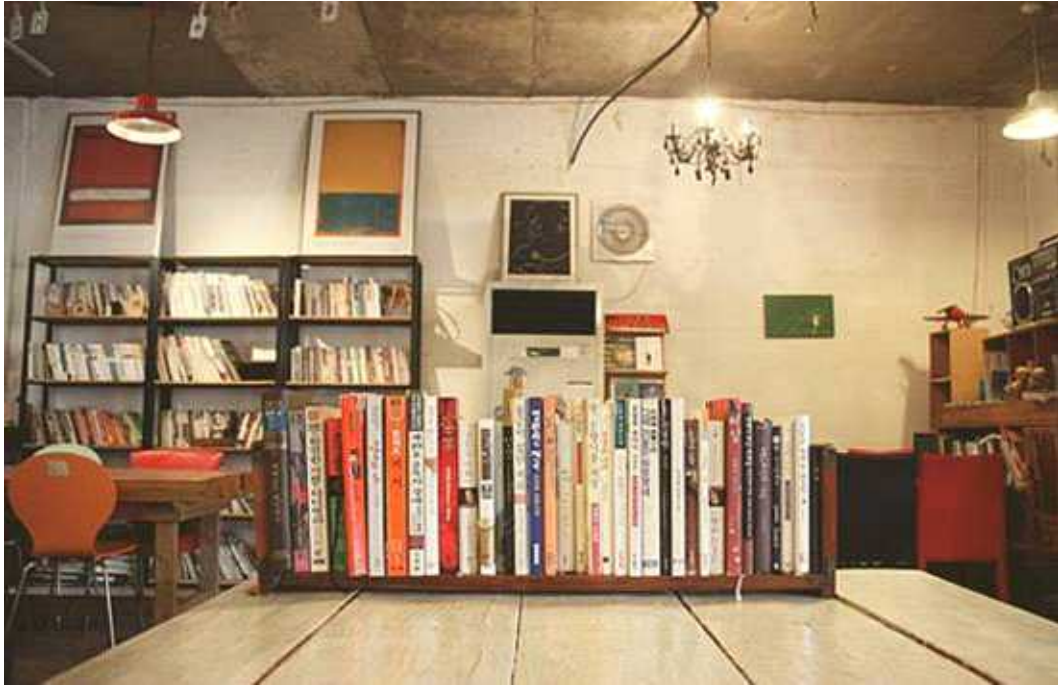


▲ 월간 토마토 대흥동 사무실 전경. ©이용원

북 카페 '이데' 김운하 사장도 적극 유치전에 돌입했다. 북 카페와 잡지사, 잘 어울리는 궁합이었다. 수를 내야 했다.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했다. 주변 지인을 만나기 시작했다. 월간 토마토 비전과 가치를 열심히 설파했다. 그 과정에서 대학에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선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 건물주도 응원해 주었다. 젊은 사람들의 용기와 추진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보증금과 월세를 깎아주었다.

바야흐로 <월간 토마토 대흥동 시대>를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2008년 2월이었다. 한 달여 사무실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고 3월부터 새 사무실에 등지를 틀었다.

대흥동은 월간 토마토에게 중요한 의미다. 월간 토마토가 새롭게 출발한 대흥동은 '반석'이란 뜻이다.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다. 대흥동이 거대한 돌, 반석 위에 올라앉아 어지간히 기가 센 사람이 아니면 버티기 어렵지만, 기가 맞으면 일이 술술 풀린다는 이야기다. 그래서일까?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어려웠던 월간 토마토에 살아갈 방법이 나타났다.



▲ 북카페 이데 내부 모습. ©이용원

다른 사업에 눈 돌리고

대전 중구 대흥동이 지금은 원도심이라 불리는 몰락한 옛 도심이지만 여전히 문화예술인과 그 수용자에게는 알싸한 '추억'을 준다. 월간 토마토와 코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곳이다. 낡음이 주는 빈티지한 매력 때문이 아니다.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세태, 이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한 반감이 포인트다.

공간이 갖는 중요성과 이 코드는 밀접한 부분이 있다. 공간을 열었더니 사람이 들기 시작했다. 공간은 맞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그곳에 모인 사람은 초록동색이다. 그것이 힘이었다. 역시 일은 사람이 만들었다.

월간 토마토를 구성하는 인력은 사진과 글, 디자인 능력이 있었다. 이 능력을 활용해 일하기 시작했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다. 일반적인 기획·디자인 회사가 하는 일이다. 외주 제작물을 맡았다는 이야기다. 소책자부터 포스터, 팸플릿, 사보까지. 당시에는 정말 돈만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월간 토마토를 쉬지 않고 만들어내야 할 자금, 운영 자금 등이 모두 필요했다.

월간 토마토 제작 외에 다른 일을 조금씩 받으면서 매출이라는 것이 발생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에게 적지만 일정 보상을 지급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함께 일을 도모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러나 내심 걱정스러웠다. 중심 줄기가 아니라 겉가지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살아남는다는 사실이 그랬다. 자칫 영영 영양분 공급이 부실한 기본 줄기가 그대로 고사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당장 영양분을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유혹이었다. 별다른 영업을 뛰지도 않는데 점점 일이 늘었다.

전문 기획사가 아닌 잡지사에서 만들어내는 디자인 작업물이 주는 '파격'이 신선했던 모양이다. 경험은 미천했고 해야 하는 당위는 분명하니 독특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코드가 맞는 사람과 단체에서 하나 둘 찾아왔다. 그중 많은 이들은 월간 토마토가 쓰러지지 않고 잘 살아남기를 바라는 지지자였다. 죽기 십상인 나무에 열심히 물을 주려는 사람들이었다. 이 감동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강력한 에너지였다.



▲ 북카페 이데 공연 모습. ©이용원

북카페 이데와 M&A

지금도 많은 외주제작물을 맡아 진행한다. 본줄기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그러나 이미 뒤통수에 빠진 상황은 쉽게 발을 빼지 못하게 만들었다. 뒤통수에 물린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정도다. '주홍글씨'라는 영화 대사였던가, 세상의 모든 유혹은 달콤하다.

달콤한 유혹에 빠져 온갖 작업물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던 중 또 다른 '유혹'이 손짓했다. 북카페 이데다. 김운하 대표가 가게를 내 놓겠다며 월간 토마토가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그래, 사업 시작할 때 생각했던 우리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우리가 잡지만 만들 생각은 아니었잖아. '이데'라는 공간에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거야.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독자가 와서 편히 쉬고 우리를 만나고.'

환상적이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이 과정에서 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깨달았다. 대흥동에 새 사무실을 구할 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내부사정은 문 닫기 일보직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사무실 운영비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새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은 모험이었다. 그래도 가야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버티기보다는 공격적인 상황 돌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북카페 이데 인수건도 비슷한 틀에서 해석했다.



▲ 월간토마토 옥상에서 열린 옥상공연에 관객들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이용원

서울 홍대앞 KT&G 상상마당도 떠올랐다. '대흥동에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야. 대흥동에 오는 사람들이 즐겁기 위해 찾아가는 건물. 다른 구조물을 위압적으로 누르는 거대한 공간이 아니면서도 충분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객기였을 수도 있다. 그래도 확실한 건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로서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은 월간 토마토에 중요한 가치였다.

이용원 / 월간 토마토 편집실장

공감만세는?



- 상 호 : (주)공감만세
 - 대 표 : 고두환
 - 연 락 처 : 전화 042-335-3600, 팩스 042-367-3333
 - 주 소 : 우편번호 301-80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30길 41 4층 공감만세(대흥동 222)
 - 사업자 등록번호 : 305-86-10687
 - 관광업 등록번호 : (국외) 제185호-대전광역시 중구 / (국내) 제233호-대전광역시 중구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정번호 : 제2012-61호
 - 인허가 보증보험 : 국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제 06-14-0137 호
국내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제 06-14-0292 호
기획(국외) / 서울보증보험 제 100-000-2014 0187 3585 호
- 홈페이지: www.fairtravelkorea.com, 블로그: tistory.fairtravelkorea.com, 이메일: fairtravelkorea@gmail.com

공감만세 연혁

2010년



1월 · 필리핀 공정여행 런칭

- 필리핀 공정여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UNDP 협력기구 시트모(Save the Ifugao Terraces Movement), 바타드 사이먼 산장
 - 탐아완 예술인 마을(Tamawan Art Village)

2월 · 북촌 공정여행 런칭

- 북촌 공정여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도서 '북촌탐닉' 저자 · 영화칼럼니스트 옥선희, 북촌동양문화박물관, 미음갤러리, 청원산방
- (재)희망제작소 청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선정

3월 · (사)풀뿌리사람들 청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선정

- 공주 공정여행 런칭
- 공주 공정여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마곡사,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구중희, 이야기가게
- 대전충남 대학생 공정여행 양성가 과정 운영(6개월)

7월 · 공감만세 사회적가치 프로젝트 '까뚜아완 까미' 탄생
 - 도시빈민지역 '바세코' 공부방 운영 사업, 필리핀 도시빈민아동 공정여행 보내주기 프로젝트

9월 · 2010 한국청년상 특별상 수상

10월 ·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 커뮤니티비즈니스 보육지원사업 선정
 · 공정여행 전시회 '이푸가오로 떠난 공정여행' / 북촌 미음갤러리

11월 · 2010 고용노동부 소셜벤처 경연대회 대전충청 권역 최우수상 수상

12월 · 2010 고용노동부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 권역 우수상 수상

2011년

1월 · 공감만세 사회적가치 프로젝트 '여행 나눔' 탄생
 - 서울지역 다문화가정 아이들 북촌 공정여행 프로그램 사회공헌
 대전지역 조순가정 아이들 공주 공정여행 프로그램 사회공헌

2월 · 일본 사회적기업가 연수 북촌 공정여행 연수프로그램 진행



3월 · 태국 공정여행 런칭
 · 태국 공정여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태국 북부 개발재단, 치앙마이 YMCA, 태국 북부 유기농 농민회, 매조대학교 지역기반관광학과

· 국내 최초 착한투자를 통한 청년 사회적기업 법인 설립

· 투명하고 공익적인 이사회 구성

- (재)희망제작소, (주)1300K, (주)손잡이닷컴 등 지분 및 공익이사로 참여

실무자 모두가 주식을 보유한 수평적 구조의 사회적기업 법인 설립

6월 ·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 런칭

-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필리핀도시빈민협회, 도시빈민지역 바세코 주민조직 '카발리캣', 도시빈민지역 바공실랑안 청년조직 'BSYF'

7월 · 제주도 공정여행 런칭

- 제주도 공정여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쉼섬 할망카페, 쇠소깍팬션

8월 · 대전광역시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

11월 · 수원 공정여행 런칭

- 수원 공정여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대안공간 '눈', 수원화성 사랑채

12월 · 2011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우수 운영표창

2012년



2월 · 유럽 공정여행 런칭

- 유럽 공정여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프랑스 비영리법인 또띠드유로

3월 · 종로구청 업무협약

4월 · 공감만세 사회적가치 프로젝트 '까뚜아완 까미' 100번째 후원자 등록

5월 ·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벤처 공모 우수상 수상

7월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시민리더십 프로그램 공모 선정 /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 tbs(교통방송) TV 희망광고 공모전 입상자

8월 ·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및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선정

- 대전문화재단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선정 / 대흥동 공정여행

9월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선정

10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선정

11월 · (주)공감만세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간 협력 협약

- 대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수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 태국북부 산학연 지역기반관광 양해각서 체결

12월 · 유성구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선정 / 유성구 진잠지역 공정여행 마을 만들기

2013년



3월 · 문화체육관광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선정 / 길 위의 문화예술 여행학교

- 대전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 선정 / 주말 여행학교
- 2013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 선정 / '동네에서 고민하는 해외자원봉사'

4월 · (재)대전문화재단 익사이팅 대전 2013 원도심 문화탐방 수행기관 선정 / 원도심 문화탐방(Tour)

- 수원시평생학습관 공정여행 양성가 과정 계약 체결
- 청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여행디자이너 양성과정 공동 진행 협약 체결
- 수출입은행·함께일하는재단 SE 희망씨앗 전파 사업 공모 선정
 - 필리핀 이푸가오주 바타드 공립초등학교 어린이도서관 건설 사업

5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 대흥동 문화예술 여행대학

- KOTFA 제 26회 한국국제관광전 부탄·공정여행 부스 공동 진행
- 전주 공정여행 런칭
- 전주 공정여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불가능공장
- 일본 공정여행 런칭
- 일본 공정여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월간 토마토, 오사카 아시아 평화도서관, 교토 아트센터, 리츠메이칸 대학, 마르마스니시무라야 공방

- 6월**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 선정
- 2013 한국국제관광전 개별 부스 참여(공정여행, 부탄 여행)
 - 부탄 관광/행복정책 토크콘서트
 - 부탄 공정여행 런칭
 - 부탄 공정여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서울시인생이모작센터, (사)풀뿌리사람들, 부탄 국영여행사 Oriental Tours & Trecks

- 11월** · SK-세상 컨테스트 성장기 사회적기업 2등상 수상

- 12월** · 필리핀 루손섬 북부 이푸가오주 이푸가오 전통 역사문화 도서관 개소
- ※ 한국수출입은행, (재)함께일하는재단 지원

2014년



- 3월** · 아이쿱생협 마스코바도 설탕산지 '파나이섬' 생산지 탐방 공정여행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선정 / 길 위의 문화예술 여행학교

- 5월** · 제천간디학교 '필리핀 평화캠프' 루손섬 일정 진행
- 강릉원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진행
 - 곡성중학교 '대전 원도심에서 만나는 꿈 넓히기 진로 캠프' 진행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속 지원 선정

- 6월** · 공감만세 - 일본국 여행사 SOME communications 업무제휴 협약 체결

- 7월** · Y여행협동조합 소풍과 '서유럽 청소년 인문학 여행학교' 진행
- 시흥시 평생학습관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협약 체결

- 8월** · 필리핀 바기오 공정여행 '예술, 이고롯과 탐아완에서 만나다' 런칭
- 교육여행기업 드림아이비즈와 '대덕특구 과학체험 가족여행' 진행
 - 일본 후쿠오카 공정여행 런칭

- 9월** · 대덕구 공정여행가 입문과정 진행
- 2014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 문화관광기획자 양성과정' 주관

공감만세 장기발전계획

㉠ 청년 모임	공정여행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년들의 모임
↓	
㉡ 청년 사회적기업	지구와 지역이 웃는 여행 + 여행 나눔 + 청년 고용
↓	
㉢ 청년 국제기구	세계 청년들과 함께 공정여행을 통해 세상을 바꾸다
↓	
㉣ 발전적 해체 + a	모든 이가 공정여행을 할 때, 발전적 해체 + 프로젝트 확대

공감만세의 공정여행 원칙



하나. 한국 사람 10명이 떠날 때, 현지인 1명도 함께 떠날 수 있는 여행.

서유럽인 69명이 여행할 때, 아프리카인 1~2명만이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는 이 시대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10명이 떠날 때, 여행경비 나눔을 통해 현지인 1명도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나눔은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사해 준 현지와 현지인에게 치르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둘. 쫓기는 일상에서 벗어나, 명상하는 여행. 그 명상이 주변과 소통하는 여행.

하루 세 번, 하늘 볼 여유도 없는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하는 이들과 명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명상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즐기며 여행을 이어갑니다.

셋. 현지 사회문화에 대한 배움을 지향합니다.

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공정한 여행을 불가능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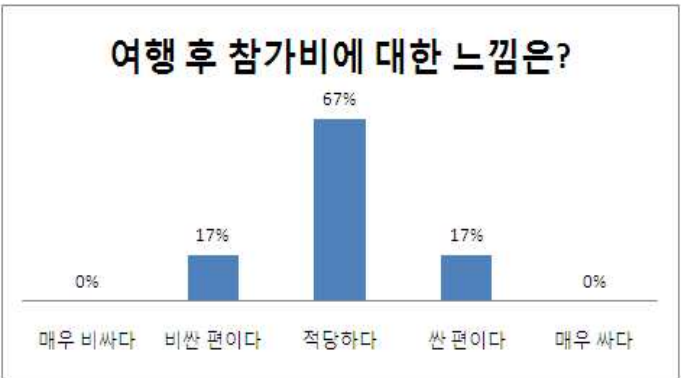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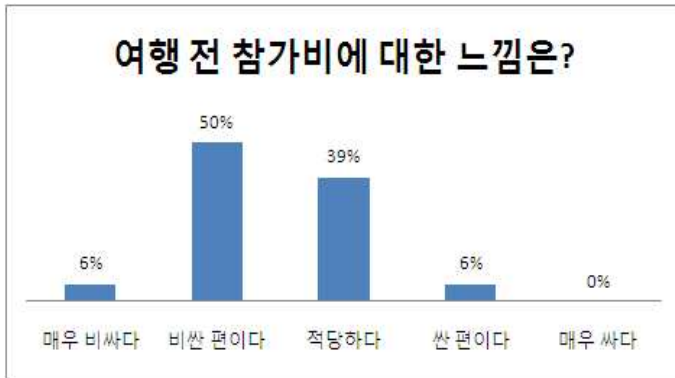
넷. 기획부터 진행까지, 참가자와 길잡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

길잡이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것 입니다.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상태에서 참가자와 길잡이는 여행의 진행을 함께 고민하며, 가이드만이 정보를 독점했던 기존 관광 방식을 새롭게 고민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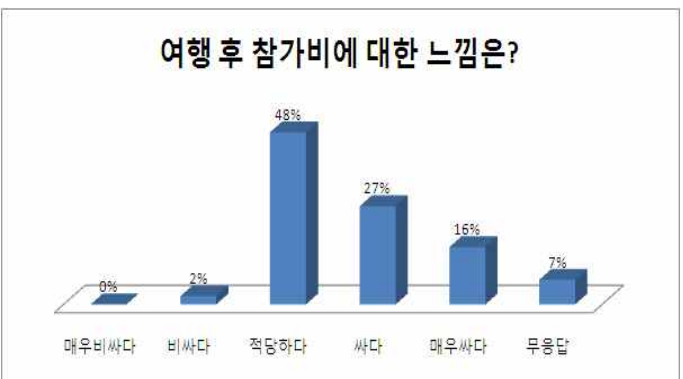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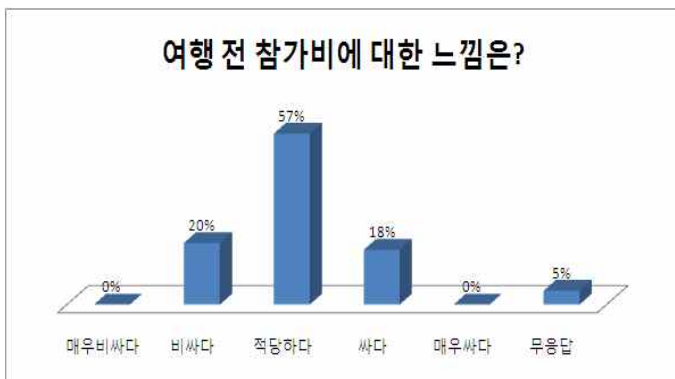
다섯. 고민하고, 소통한 뒤, 실천하는 여행.

공정여행 원칙이라 무조건 따르기만 한다면 재미없다?!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호, 기부하는 여행, 동물학대 금지 등 공정한 여행을 위한 방법들을 여행 내내 고민해보면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여행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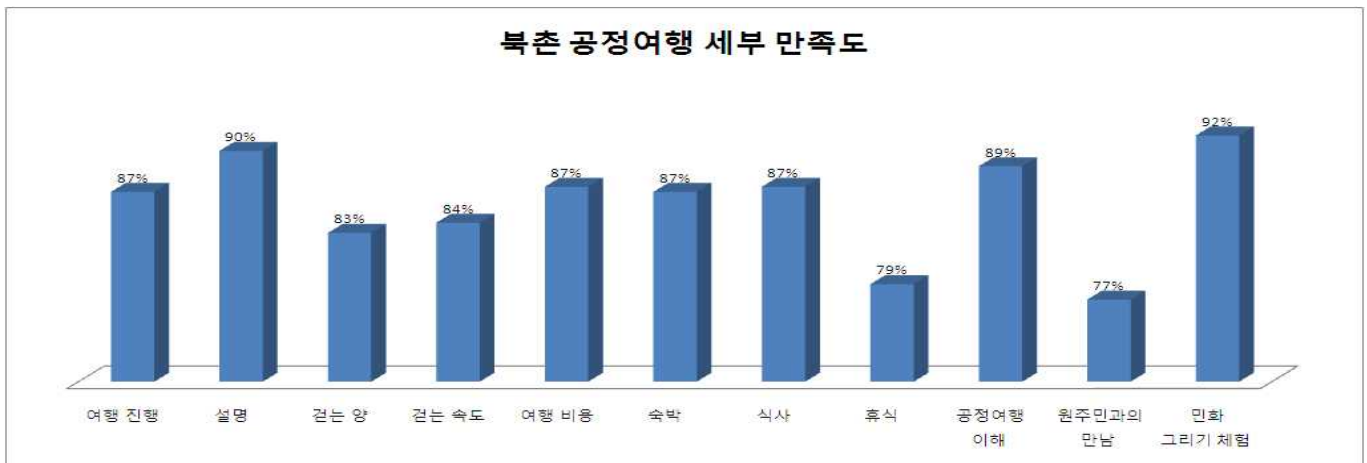
공정여행 참가비가 부담스러우신가요?



<2010 공감만세 필리핀 공정여행 참가자 설문조사 자료 중 일부 발췌>



<2010 공감만세 북촌 공정여행 참가자 설문조사 자료 중 일부 발췌>



- 온라인 여행사 9곳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금 과다 징수(최대 82% 부담 징수),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무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저)

<2013 여행사별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 과다 부과 현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존의 여행 패턴은 광고 시 가격만 싸게 할 뿐, 여행 모델 내에서 여행자를 착취하곤 했습니다.

공감만세의 공정여행에는 허위광고와 추가요금이 없습니다.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제 값을 주고 질 높은 여행을 하자는 취지로 책정된 가격, 그것이 지금의 참가비입니다.

공감만세의 언론보도 내용



1. <‘착한 관광’으로 3년간 따뜻한 손길> 한겨레 신문 2013년 4월 11일자

“매출 90% 지역환원·이익 10% 기부, 연간 10억대 매출로 튼실한 성장, 취약층 돕는 공정여행가 키울 것”



2. <여행은 단순히 가는게 아니라 하는 것이다> : KBS 다큐멘터리 우리 시대의 나눔 2011년 5월 방영

“필리핀 식민 유적지를 직접 견고, 세계문화유산 ‘계단식 논’ 복원사업에 참가하며, 필리핀 도시 빈민 및 원주민을 만나 우정을 나누는 것”



3. “즐거운 불편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세상, ‘공정여행’ 중 일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희망세상 8월호

“우리는 현지인 식당과 숙소,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현지의 관습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공정여행은 원주민들과 이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축제를 벌인다. 조금은 불편한 여행은 일상에 돌아온 지금도 '즐거운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Memo

